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26호

체육시민연대 20주년 기념 행사

2022년 7월 2일(토) 오후4시~5시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1층 교육공학실

이준희의 여기 VAR

최속현을 잃고도, 그게 '임제'인지 아직 모른다고요?

이준희 한겨레 기자

한겨레 단독보도 **“역도부코가 폭행” 신고에 한체대 “조용히 처리하자”** 그 이후

스포츠윤리센터, ‘한체대 역도부 폭행’ 직접 조사한다

이준희 한겨레 기자

고진현의 창(窓)과 창(槍)

‘보는 체육’과 ‘하는 체육’

고진현 스포츠서울 전문기자

대한체육회

체육계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한다

설성현 코리안스피릿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감사합니다

체육시민연대가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활동해주신 체육시민연대 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시민연대가 맞이한 20주년의 의미는 더 열심히 뛰라는 격려로 삼겠습니다.

선수들은 인권 친화적 환경과 문화에서 즐겁게 운동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폭력과 성폭력, 일상적 통제, 학습권 침해 등 인권침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인권침해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스포츠계 구조적 문제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도자들은 안정된 신분이 보장되고 스스로 인권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체육단체, 협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그 길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2022.07.02

체육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 행사

20주년 기념상품(수건)을 원하시는 회원님들은
사무국(02-2279-8999)에 요청주시면 발송해드리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창립 20주년 기념행사

- 스포츠로 행복한 세상 -

➤ 일시 : 2022년 7월 2일(토) 오후 4시 ~ 5시

➤ 장소 : 서울교육대학교 전산관 1층 교육공학실



최속현을 잃고도, 그게 ‘은폐’인지 아직 모른다고요?

취재하다 보면 때론 생각지 않게 사실을 쉽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민감하고 내밀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상대방이 먼저 털어놓을 때가 그중 하나다. 일하는 입장에선 고맙다. 숨길 거라 생각한 사실을 솔솔 말하는 취재원을 싫어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쓰리다. 해당 사실이 심각한 문제일 경우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역도부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을 취재할 때도 같은 경험을 했다. 최아무개 역도부 코치가 기숙사에서 학생들을 폭행했고, 이로 인해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을 취재하면서 한체대 쪽에 연락했다. 학생들에게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하는 “조직적 은폐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을 들은 터지만, 학교에서 쉽게 말해주진 않을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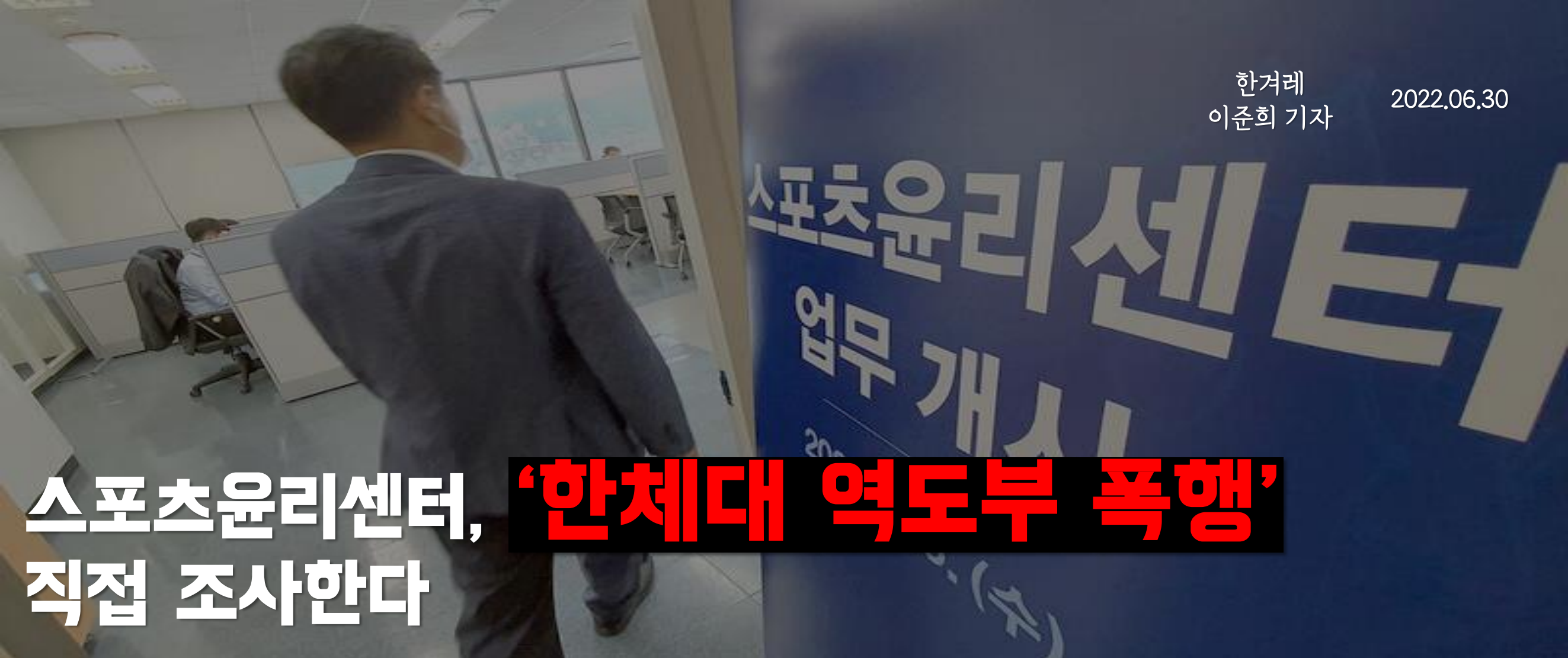
그런데 막상 연락이 닿자, 한체대 쪽은 고소 취하 이야기부터 꺼냈다. 조준용 한체대 교무처장은 “학생, 학부모님들과 담당 지도교수가 접촉해서 되도록 합의해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 또한 학교 대표로 학부모님 뵙고 학생들 만나서 되도록 조용히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학생들 입장에선 그게 회유,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겠느냐’고 되묻자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게 가능하겠느냐”면서 “은폐 시도는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

약 2년 전 고 최속현 선수가 스포츠 폭력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도, 비슷한 은폐 시도가 다른 동료들을 상대로 끝없이 이뤄졌다. 남은 동료들은 가해자, 가해자 가족, 다른 선배 등에게 계속 **전화와 문자로 압박을 받았다**. 그때도 은폐 시도는 총이나 칼을 들이밀고 이뤄지지 않았다. “조용히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냐”, “우리도 잘못은 있지 않냐”는 식이었다. 그들도 이걸 설득이라고 생각했다.

최속현 선수를 잃고 나서야, 우리 사회는 그걸 ‘은폐’라고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스포츠 지도자는 스포츠 폭력 등을 알았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의무 신고’ 규정을 마련했다. 이른바 ‘최속현법’ 핵심 조항이다. 법 시행 1년이 지났지만, 한국 최대 엘리트 체육 산실이라는 한체대는 최속현법 내용조차 모르는 듯했다. 그게 아니라면, 법 위반 사실마저 그렇게 기자에게 솔솔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최속현법이 유명무실화한 건 스포츠계 전반적 문제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난해 9월 경북 예천에 있는 중학교에서 선배 양궁 선수가 후배에게 활을 쏘는 일이 발생했지만, 피해자 가족이 폭로에 나서고 언론 보도가 난 뒤에서야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스포츠인권연구소는 이 당시 “학교와 지도자가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했다”며 “더 근본적인 범위와 단위에서 조사와 대응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제는 잊혔고 9개월 만에 다시 불거졌다.

한체대 이야기를 전해 들은 스포츠 폭력 피해자들은 “최속현 선수가 떠난 지 2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변한 게 전혀 없다”고 한탄했다. **당시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면목이 없었다. 쉽게 쓰인 기사도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다. 그게 전혀 변하지 않은 우리 사회 민낯을 다시 봤기 때문이라면 말이다.



스포츠윤리센터, **‘한체대 역도부 폭행’** 직접 조사한다

스포츠윤리센터가 한국체육대학교(한체대) 역도부 폭행을 직접 조사한다.

스포츠윤리센터 관계자는 30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언론 보도 뒤 한체대로부터 역도부 폭행에 대한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해당 사건 조사에 나선다.

앞서 [26일 <한겨레>](#)는 한체대가 학내 역도부 최아무개 코치가 학생들을 폭행했다는 경찰 고소가 접수되자 관계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학생·학부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하는 등 사실상 은폐를 시도했다고 보도했다.

[‘최속현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스포츠 지도자는 스포츠 폭력을 알게 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다. 이 때문에 한체대가 학생들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건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나왔다.

보도 이후 신고가 접수되긴 했지만, 여전히 국민체육진흥법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현장에선 여전히 즉시 신고 의무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함은주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최속현법상 즉시 신고 의무에서 ‘즉시’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로부터 독립적 위치에서 스포츠계 인권침해 및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권지원센터 등으로 나뉜 기능을 일원화해, 2020년 8월 문을 열었다.

‘보는 체육’과 ‘하는 체육’



고진현의

창(窓)과 창(槍)

변화는 곧 익숙함으로부터의 탈피다. 변화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유는 불편함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체육의 패러다임에 비로소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보는 체육’에서 ‘하는 체육’으로의 변화, 느리지만 분명한 그 흐름을 느낄 수 있어 반갑기 그지 없다. ‘보는 체육’이 머리로 즐기는 것이라면 ‘하는 체육’은 곧 몸으로 하는 체육이다. 체육 본연의 가치 회복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농협대학교에서 막을 내린 ‘2022 NH농협은행 올원(ALL ONE) 아마추어 테니스오픈’은 한국 체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좋은 무대였다. 무려 1000여명의 테니스 동호인이 참가한 이 대회를 통해 한국 체육의 밝은 미래와 긍정적 변화를 읽을 수 있어 뿌듯했다.

전문선수들의 기량과 견줄 수는 없지만 그들의 표정 하나 하나에 기쁨과 행복 그리고 열정이 흘러 넘쳐 체육 본연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느끼고도 남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확인한 고무적인 변화는 젊은층의 체육 참여도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점이다. 동호인 대회에 이른바 MZ세대들이 대거 참여한 사실은 바람직한 체육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받았다. 그동안 생활체육은 중·장년층이 중심이 됐는데 젊은층의 유입이 가속화되면 체육의 토대를 훨씬 탄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체육의 종전 패러다임은 소수 정예의 전문선수들을 강한 훈련으로 길러내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목표에 집중했다. 체육의 국제 경기력, 이게 더 이상 생명력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경쟁은 체육에서 결코 버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다만 사회의 진보와 역사의 발전을 고려해 체육에서도 다양성의 가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한국체육의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상황에 봉착했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는 저변이 얇은 전문체육의 기반을 흔드는 충격파로 작용한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한국 체육의 패러다임 변화는 어찌면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한 패러다임 변화의 기본 뼈대가 바로 새로운 체육 생태계의 구축이다. 기반을 튼튼히 하고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새로운 체육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사실은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결국 ‘보는 체육’에서 ‘하는 체육’으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한국 체육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비전인 셈이다.

한국 체육이 ‘하는 체육’보다 ‘보는 체육’에 익숙했던 이유는 체육이 수단적 가치에 매몰됐기 때문이다. 근대 체육의 유입기인 일제 강점기에선 체육이 민족적 울분을 토해내는 도구로 활용됐고 압축성장기에선 체육이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복무했다. 이제 세상은 변했고 체육도 본연의 가치를 회복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에 직면했다.

체육은 더 이상 ‘몸의 퍼포먼스’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몸과 머리는 서로 이어진 하나의 ‘공동 운명체’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있다. 몸을 쓰게 되면 창조적 상상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내로남불’이 만연한 한국 사회의 고질병도 ‘몸의 철학’으로 충분히 치유할 수 있다. 세상을 머리로 사유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고 여기는 경향이 강하다. ‘몸의 철학’을 우습게 여기는 사회가 ‘내로남불’이라는 이상기류에 쉽게 빠지는 이유다. 세상은 머리로 사유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고 이해하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은 훨씬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 몸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한국 체육이 ‘보는 체육’에서 ‘하는 체육’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체육계 반부패 · 청렴 문화 확산한다

체육계가 부패와 성폭력, 인권침해 등 부정적인 문화를 없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을 목표로 다각도의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에 나섰다. 이와 함께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협약을 맺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대한체육회, 종합청렴도 2등급 목표로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

대한체육회(이기흥 회장)는 종합청렴도 우수기관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행복한 스포츠로, 미래를 여는 체육회' 비전 아래 2022년도 청렴·반부패 정책을 추진한다. △반부패·공정 개혁 달성 △신속하고 적극적인 부패차단 △국민 목소리 기반 공감하는 청렴문화 확산이라는 3대 전략 아래 12대 중점과제와 29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자체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과태료와 처벌, 부당이익 환수 등 제재를 가하도록 제도의 운영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이제는 고위직 반부패·공정 실행력 강화를 위해 '5개 핵심과제 약속과 실천'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 함께 △승부조작 근절 정책기반 구축 △회원시도체육회 청렴사회협약 체결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 △청렴 공직자 인센티브 부여 △전 직원 참여형 청렴협의체 '청렴톡톡' 설치·운영 등의 5개 핵심과제를 공약하고 집중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이기흥 회장은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직이 솔선수범해 청렴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며, "체육회가 추진 중인 여러 정책들이 국민이 실제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 위한 청렴 사회협약 체결

대한체육회는 이와 함께 전국 시도체육회장협의회와 지난 6월 체육계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회원시도체육회 청렴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대한체육회와 전국 시도체육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반부패 청렴 문화 정착 및 확산에 대한 협력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컨설팅 참여 △「찾아가는 직장운동경기부 청렴학교」 참여 등을 이행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협약 기간은 1년이며, 협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없는 한 1년씩 연장된다.

대한체육회는 올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과 새 정부의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이라는 국정과제에 발맞춰 이번 청렴사회협약을 계기로 체육회 종합청렴도 제고 및 취약 부문을 개선하는데 힘을 계획한다.

다음 장 계속

대한체육회, 부패·공익신고 실효성 강화 캠페인

대한체육회는 7월까지 부패·공익신고 운영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대한체육회장과 함께하는 ‘한번에 배우는’ 청렴플로깅 캠페인」을 실시해 스포츠 승부조작 부패행위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활동을 실시했다. 또 대회기간 학생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제도 인식조사를 실시해 누구든 승부조작과 관련한 부패·공익신고가 언제나 가능함을 안내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캠페인 기간 부패·공익신고 제도와 관련한 다양해진 반부패 법령 개정사항을 사규에 반영해 체육회 청렴·반부패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범력 확보에도 힘쓸 방침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대상 법정 의무교육 제공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인이라면 반드시 이수하도록 법으로 규정된 교육을 시작했다. 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등 3종류의 법정 의무교육을 제공한다.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은 선수와 지도자, 심판, 체육 단체 임직원 등 체육인이라면 매년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올해는 온라인 강의뿐만 아니라, 고령자나 저학년 학생, 장애체육인 등 취약계층을 윤리센터 인권강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오프라인 강의 형태로도 진행될 예정이다.

윤리센터는 체육인의 편의를 위해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씩 해당 교육을 추진하며, 하반기는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진행된다. 수강 대상자는 상·하반기 교육 기간 중 아무 때나 ‘국민체육진흥공단 K-SPO 에듀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된다.

스포츠윤리센터, 온라인 교육사이트 개설

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고 체육인에게 스포츠윤리 교육영상을 제공한다. 윤리센터는 지난 5월부터 교육 전용 사이트인 ‘스포츠윤리 런(LEARN)’ 운영을 시작하고, 체육인이 더욱 쉽게 ‘법정 의무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체육인은 회원가입부터 교육 수강 신청, 교육 수강, 이수증 발급까지 웹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고, 체육단체의 교육담당자는 웹사이트에 접속해 소속 체육인의 교육 이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윤리센터에서 주관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성)폭력 예방교육’ 인권강사 파견신청도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으로 파견된 인권강사에게 강의를 수강할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상 의무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교육은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과 <체육지도자 재교육> 등 2개 과정이 제공된다.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체육인은 교육사이트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본인이 이수해야 하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인권 맞춤형 교육 개최

대한장애인체육회는 7월 4일과 5일 이틀 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2년도 스포츠인권강사 역량강화를 위한 스포츠인권 맞춤형 보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전국 체육단체 종사자 및 시도별 등록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인권교육이 의무화함에 따라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계획한 교육사업으로, 전국 스포츠 현장에서 활동 예정인 스포츠인권교육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이다.

교육과정은 두 과목(장애인스포츠의 이해, 장애감수성)으로 장애인스포츠분야 및 장애인인권분야에서 오랜 노하우와 강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고 32명의 신청자들이 1차, 2차로 나뉘어 교육을 받았다.

주간 스포츠 소식

독일축구협회장 "카타르 월드컵, 가장 논란 많은 대회 될 것"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5111000007?input=1195m>

"워라벨 챙기세요" ...구로디지털단지에 다목적 체육관 건립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5069900004?input=1195m>

'다시 일상으로' ... 전북교육청, 학교체육시설 전면 개방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5_0001931752&clD=10808&pID=10800

용인시, 대한체육회 지방체육진흥사업 공모 선정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509442143451>

대한장애인체육회, 스포츠인권 맞춤형 교육 개최

<https://www.news1.kr/articles/?4733103>

태안군, 체육센터 등 생활밀착형 스포츠 인프라 대폭 확충

<https://www.yna.co.kr/view/AKR20220704038200063?input=1195m>

[단독]"또 터졌다! 성추행 파문" KARA 강신호 출범 '악재'...5일 상벌위 개최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22070409545267702>

대한체육회, 2022 대한민국 스포츠영웅 후보자 추천

<https://www.inews24.com/view/1496990>

[이심전심] 엘리트 체육과 스포츠클럽문화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548926>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